# 구역예배 말씀

제4권 (1단원) 예수님의 비유

## (제2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13:24-30, 36-43
- **요절** :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30)
- **찬송** : 458장(새찬송가 405장), 543장(새찬송가 491장)

오늘 살펴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지난 주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싹이 나고 이삭이 필 즈음에 이르러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음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렇게 한 것이 원수의 소행이라고 밝히는 한편, 가라지를 뽑기를 구하는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이 우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였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시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넣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 1. 밭에는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뿌려져 있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교회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때로 신앙이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케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교인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소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지만 그 속은 늑탈하는 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귀는 일찍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이래로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귀의 권세는 철폐되었고 언젠가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성도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는 것입니다. 지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채 겉모양만 갖춘 거짓 신자도 섞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용납한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 중에 알곡 신자와 함께 가라지 신자가 섞여 있는 것을 정하신 때까지 용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가라지 신자로 인해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였습니다.**

밭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음을 발견한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대답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였습니다.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이삭이 상하거나 뽑히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주인은 많은 가라지를 없애는 것보다 한 포기의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가라지 신자를 솎아내려다가 혹시라도 알곡 신자가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자칫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사숙고할지라도 누가 알곡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 신자인지를 분별해 내는 데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신자의 영적 미숙함이나 인간적인 약점을 보고 그를 가라지 신자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때문에 그 어린 신자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가라지 신자가 악행을 행해도 방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짓된 신자로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계하고(딤후 2:25,26), 때로는 교회의 출석을 금할 필요도 있습니다(고전 5:13). 단지, 어떠한 경우라도 가라지 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릅니다.**

이 비유에 보니, 추수 때에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추수꾼들은 그동안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위세있게 자라난 가라지를 한곳에 모아 뜨거운 불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과, 교회는 다녔으나 거듭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살던 거짓 신자들과,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을 추종하던 자들이 한꺼번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치 곡식 이삭이 여러 달에 걸쳐 혹독한 더위와 가뭄과 병충해를 견뎌낸 후 추수하는 날에 거두어지고 탈곡되어 창고에 들여지듯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뎌낸 알곡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알곡 신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친히 뵙고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바친 모든 수고와 흘린 땀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도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롬 8:18).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실한 알곡 신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듯이, 지상의 교회에도 가라지 신자로 인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이러한 형편을 잘 아셨으므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알곡 신자답게 더욱 주의 일에 힘씀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